

【참관기】

## 만주의 현대적 조명

—통일을 위한 공간—

정겨울\*

### 여는 말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상당히 묵직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 휴전 이후 현재까지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에 놓여있다. 휴전 이후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통일을 말해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본다면 과연 이러한 염원이 순조롭게 달성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세대가 변화하며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태를 여실히 드러낸다. 근래 진행된 2030 세대 통일 관련 인식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 대다수 2030 세대는 통일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다.<sup>1)</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누군가는 현 상황에서 통일을 거론하는 것이 더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마도 대다수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은 영토의 통일 즉, 물리적인 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랜

---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조교수.

1) 「2030 청년들의 통일인식과 정책 과제」, 『평화+통일』 2023년 2월(통권196호) 참고.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분단 현실과 근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물리적 통일의 가능성은 사실상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더 이상 의미 없고 현실 불가능한 통일을 이제 우리는 그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만도 않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요컨대, 현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해야 할 것인데, 이는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분단 상황으로 인해 남북 사이에 형성된 문화적, 심리적 분단의 우선적 해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물리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주요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통일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리적, 문화적 통일 구축을 위한 주요한 매개 공간으로 우리는 남북한 공동의 역사적 기억과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만주’라는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만주란 무엇인가. 만주는 그동안 다양한 맥락과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특정 영토를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얽히고설켜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가 교차하고 공존했던 복합적 공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만주’라는 명칭은 단일한 의미로 환원되기 어려운 다층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만주는 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학술적 사유의 장(場)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주를 ‘과거의 시공간’으로만 상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유산, 식민지 경험, 혹은 역사적 분쟁의 공간으로서의 만주는 종종 고정된 역사적 서사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만주를 단지 기억의 대상이 아닌 ‘기억의 재구성(reconstruction of memory)’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만주에 남겨진 ‘유산(heritage)’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산은 단순히 해당 지역에 남겨진 사물이나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체가 과거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계승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만주를 둘러싼 기억과 유산은 오늘날의 동북아시아 정체성, 경

계, 권력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만주를 다시 호명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 시각에서 현재를 사유하며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2024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분주한 계절 속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과 만주학회는 '만주의 현대적 조명: 통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제목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식민과 탈식민, 냉전과 탈냉전의 복합적 층위가 얽힌 만주라는 공간을 새롭게 사유하려는 시도로 기획되었다. 만주의 공간적 논의와 역사적 맥락, 그리고 현재적 함의를 교차시키는 본 학술대회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다기능적 공간으로서의 만주', '국민국가와 한중간 접점으로서의 만주', 그리고 종합적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다기능적 공간으로서의 만주

'만주의 현대적 조명: 통일을 위한 공간'을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만주라는 공간을 더 이상 과거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의 무대나 중국의 '동북공정' 속 타자화된 영토로 한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통일 이후를 모색하는 오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에서 진행되었다. 발표자들은 만주를 단지 경계 바깥의 장소가 아니라, 한반도 내부 질서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층적 공간으로 위치 지으며, 역사적 기억, 문화적 흐름,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곧 만주가 지니는 '다기능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제1부 발표에서는 만주의 공간성이 가진 복합적 위상, 곧 한반도와 대륙 사이에서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 발표는 문화, 역사, 경제라

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만주를 매개 공간으로 삼아, 이질적인 요소들이 충돌하면서도 상호작용했던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첫 번째 발표는 '만주공간을 통해 한반도에 전파된 북방선진문화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주제로, 문화사적 자료를 토대로 북방 유목문화가 만주를 경유해 한반도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 발표는 기존의 문화사 서술이 중국 혹은 한반도 내부의 발전론에 치우친 측면을 비판하며, 만주라는 경유지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문화 전이의 매개지였음을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만주를 통해 북방문화가 한반도로 전파되는 메커니즘을 비롯해 군사, 정치사회구조, 종교, 예술문화, 경제, 언어와 문자 방면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문화 전파는 궁극적으로 만주를 문화 전파의 '길(Road)'로 상정하는 남북 문화 교류의 교차점,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 융합에 끼치는 영향 등을 탐구하는 데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만 '북방선진문화'<sup>2)</sup>라는 개념 자체에 내포된 진화주의적 함의와 문화적 수용과 전파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전히 일방향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깊은 탐구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 발표 '만주/중국동북지역에서의 독립운동과 한국 현대사'에서는 만주를 한국 독립운동의 거점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부각하였다. 특히 분단 이후 남한 중심의 독립운동 서사가 북한의 서사를 주변화시켰다는 사실과, 통일 이후 이러한 '기억의 단절'이 재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발표는 독립운동의 주체들이 오늘날 남북한 모두의 역사적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단 이후의 역사화' 방식에 대한 성찰 역시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발표자는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특히 발표자는 만주에서 전개한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러한 역사가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아닌, 중국 조선족(중국 소수민족)의 역사

2) 발표자는 '선진문화'라는 개념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 DNA 속에 북방 유목 민족들이 주도적으로 형성한 독특한 생존 기술과 전쟁술, 광범위한 교역망 형성 등과 같은 우월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를 토대로 제시한 것임을 밝혔다.

로 정착될 위기가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발표를 들은 후, 필자 개인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역사 기술 방식이나 만주 독립운동사에 대한 서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시간 관계상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었지만, 향후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보강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 발표는 ‘북한과 중국의 제한적인 경제협력과 향후 전망’을 다루며,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실태와 그 안에 내재된 갈등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이었다. 발표자는 압록강 접경 지역 및 두만강 하류 지역 등지에서 진행된 경제 프로젝트들을 사례로 들며 중국의 일방적인 주도과 북한의 제한적 대응이라는 불균형 구조를 지적하였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측면의 경제적 경합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신뢰, 제도적 정합성,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북·중 관계의 복잡성과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적 득실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북·중 관계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과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민케 했다. 발표와 관련해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이와 같은 북·중 간의 경제협력 모델이 왜 실패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지 그 궁극적인 원인이었다. 아울러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북·중 접경 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이 이러한 정책 실행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 제한되고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세 발표는 서로 다른 주제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만주를 단순히 한·중 간의 경계가 아닌 복합적 접점이자 이동과 충돌의 공간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만주는 한민족의 문화 형성에 있어 외부 문명의 유입로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남북의 공통된 민족적 기억과 경험을 간직한 곳인 동시에, 현재에는 북·중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전략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만주라는 공간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국민국가와 한중간 접점으로서의 만주

이번 학술대회는 오랫동안 식민사 혹은 국경 너머의 이질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만주를 다시 호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만주는 한·중·일 3국의 근대 정치가 중첩된 공간이자, 수많은 이주와 추방,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발생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곳은 각국의 정치적 상상력 안에서 배제되거나 잊힌 지대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만주를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장소'가 아닌, 통일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더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사유할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부에서 다루어진 만주의 다기능적 성격, 곧 문화 전파의 통로, 한민족 독립운동의 주 무대, 그리고 북·중 경제협력의 접경지로서의 위상에 이어, 제2부에서는 보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만주의 공간성이 국민국가 개념과 어떻게 얽혀 왔는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다. 각각 문학, 정치, 국제법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접근을 시도한 세 발표는 그동안 만주를 둘러싼 기억과 영토 소유를 둘러싼 정치적 욕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경합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첫 번째 발표는 '국가와 문학: 만주 문학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라는 조선인 작가의 사례를 토대로 '만주문학'의 개념과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발표자는 이마무라 에이지라는 작가 개인의 일생에 관한 소개와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미완고』, 『동행자』, 『대지의 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삶과 불안정한 심리를 설명했다. 특히 이마무라 에이지의 삶과 문학은 일본인, 곧 제국의 지배자가 되고자 했던 개인적 욕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폐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한계를 철저하게 마주했던 작가의 체험을 처절하게 드러낸다. 여기에는 당시 만주라는 공간을 살아낸 작가가 직면한 타자성과 공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발표자는 만주 문학을 단순히 국가문학의

부속물로 환원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경계적인 위치에서 발생한 새로운 텍스트의 층위로 읽어야 한다는 시각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문학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사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 발표인 '만주의 국제정치: 근대 국민국가와 통일'에서는 만주를 둘러싼 영토와 민족,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청말부터 근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국이 만주 문제를 어떻게 '국제적 사안'에서 '국내 문제'로 전환시키려 했는지에 주목했다. 발표자는 만주라는 공간이 단순히 지역적 층위에서 읽히는 것을 넘어, 현대 중국의 국제정치와 국내 통일,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세 가지 지점이 교차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발표에서 발표자는 이러한 지점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만주 한인(조선족/재중동포)을 둘러싼 민족, 영토, 주권 문제에 주목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중국의 민족국가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토대로 만주가 국제질서와 민족 정체성, 제국과 국민국가의 충돌이 교차하는 정치적 접점이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 발표는 만주를 단순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닌, 국제정치와 국내 주권 전략이 충돌·교차하는 공간으로 재조명하며, 특히 중국의 만주 '국내화' 전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오늘날 중국의 영토 인식과 외교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세 번째 발표인 '국가와 영토: 한반도와 만주 사이'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간도 지역을 포함한 만주의 영토 소유권 문제를 분석하고, 그 역사적 맥락과 오늘날의 정치적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발표자는 '간도협약(1909)'의 불법성 문제와 함께, 만주를 둘러싼 역사적 영토 논쟁이 단지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계 설정 및 향후 통일 이후의 외교적 변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발표는 특히 영토 문제를 둘러싼 '법적(法的) 기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역사적 불합리가 어떻게 국제질서 속에서 은폐되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만약 이와 같은 접근이 국제법의 형식적 틀 안에서만 논의될 경우, 이는 다시금 실효적 지배의 주체 혹은 국가 주권 중심의 이해관계 분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

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이미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 간도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접근 방식은 향후 통일 공간 설계를 비롯해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2부의 발표들은 만주를 단지 과거의 정체된 지역이 아닌, 오늘날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여전히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긴장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만주는 단지 역사적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억의 지층과 영토의 쟁점이 지속적으로 재정착되는 장소이자, 통일 이후의 한반도와 그 외부 세계가 접속하게 될 미래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이에 각각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통일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만주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북한, 나아가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관계 구축을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거점이 될 것이다. 둘째, 만주라는 공간을 둘러싼 남북한의 이질적인 기억은 통일 이후 '공통의 역사'를 구축하는 데 있어 복잡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 만주라는 공간에 남겨진 남북한의 공통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 있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공간으로서의 만주

마지막 라운드테이블 토론 세션은 통일 이후 만주가 가지게 될 지정학적 의미와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만주를 단지 과거 독립운동의 현장이나 제국주의의 충돌 공간으로만 보지 않고, 통일을 준비하고 그 이후를 상상할 수 있는 실천적 장소로서 재위치시키고자 시도했다.

우선 이와 관련한 첫 번째 논의의 주요 쟁점은 만주에 대한 지정학적 재해석이

었다. 만주는 러일전쟁, 만주사변, 만주국 수립 등과 같은 사건을 거치며 국제질서 재편의 한복판에 있던 공간이자 냉전기 이후에는 각국의 전략적 충돌이 집약되었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토론자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적 층위 속에서 만주는 단순한 ‘과거의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국제질서와 서로 다른 기억이 충돌하는 장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와 동시에 만주는 통일 이후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전환의 공간’으로도 상상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물류·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만주는 유라시아 철도망과 남북한 종단철도의 연결 지점으로서 동아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고 연결하는 실제적인 허브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관련 논의에서 토론자는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 체계의 의미를 넘어, 분단된 질서의 실질적 연계를 복원하는 상징적 수단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통일 미래 구축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도시적 관점에서는 만주를 포함한 동북아 산업 지대가 사실상 ‘후기 공업 도시’라는 공통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 관련 산업의 쇠퇴 이후 도시 회복력(resilience)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구성과 협력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맥락에서 만주는 한국 남부 공업 도시들과 중국 동북지역 도시들이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도시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주요장(場)이자, 향후 북한의 도시 재건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적 실험지대가 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만주의 또 다른 함의는 문화적, 정치적 상상력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에 있다. 통일을 단순히 제도와 국경의 통합이 아닌 삶의 방식과 생활세계의 통합으로 볼 때, 만주는 남과 북, 조선족/재중동포, 중국인, 러시아계 이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뒤엉켜 살아온 다중적 경계의 공간으로서,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질서를 실험할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만주에서 자치, 협력, 상호 공존의 감각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통일 이후 한반도 질서를 구상하는 데도 주요한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만주는 국제법적·외교사적 쟁점의 교차로이기도 하다. 간도협약, 만주국

수립,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 일련의 조약과 선언들은 만주를 둘러싼 외교사의 복잡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곧 우리나라가 이 지역을 사유할 때는 단순히 민족주의적 접근을 넘어 국제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는 만주에 거주했던 조선인의 존재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성 논의를 외부로 확장시키는 열쇠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발표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만주가 더 이상 ‘과거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통일 이후의 미래’를 실험할 수 있는 실질적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통일 미래를 위한 과정에서 만주는 민간 교류, 도시정책 실험, 생활 문화의 교차 지점,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경계적 공간으로 상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을 단지 제도의 일원화나 국경의 획일화가 아니라, 다중적 주체가 공존하는 생활세계의 창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와도 맞물린다. 무엇보다 이처럼 다양한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공통된 문제의식은 바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간적 상상력이 부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 있었다.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는 대체로 남과 북의 관계에 국한되거나 제도적 통합, 정치적 협상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는 만주를 중심에 둬으로써, 통일이라는 주제를 국경 너머의 실천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었으며, 만주는 곧 통일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층적인 실험장으로 환원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 학술대회는 만주라는 공간이 지닌 역사적 깊이와 현재적 잠재성을 통해, 통일 담론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합적 시선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렇기에 통일을 다시 묻는 일은, 더 이상 ‘어떻게 물리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경계를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함께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만주가 위치한다.

## 나오며

이번 학술대회는 만주라는 공간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나 타자적 공간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 적극적 공간이자 사유의 장으로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주는 역사, 문화, 경제, 법률, 문학이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현재의 분단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전히 만주와 관련한 대다수 연구나 서사들은 국민국가 중심의 서사 중심,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준비 부족, 국가주의적 틀에 대한 이중적 의존과 같은 여러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통일을 위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만주를 새롭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기존 인식에 대한 비판과 검토와 함께 조선족, 북한 주민, 접경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실질적 주체로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만주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주를 다시 말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만주의 현대적 조명’이 요청하는 진정한 실천이 될 것이다.